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 Bloomberg: 미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폭 상승...여전히 최저 수준
- WSJ: 주택 시장 슬럼프,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노력 돕는다

[미국 금융]

- WSJ: 투자자들, “달러 약세로 전환, 계속 된다”

[뉴저지 소식]

- Bloomberg: Jersey City,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한명도 없었다. 왜?

[중국]

- Cnet: 중국발 여행자는 미 입국전에 코로나 음성 결과 제시해야
- CNBC: 많은 중국인들 외출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경제]

- Bloomberg: 내년도 글로벌 경제전망은?

[원자재]

- Bloomberg: 내년에도 원자재 붐 계속된다
- CNBC: 유럽 천연가스 가격,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회복
- CNN Business: 올해 급등 가솔린 가격, 내년에 예측 힘들다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美 기업인 80%, 내년 침체 예상
- 연합뉴스: "미국 IRA 청정에너지 지원규정 아직 모호...구체적 기준 나와야"
- 한경: 소매업, 내년 먹구름 낄다더니..."코스트코·홈플러스는 번창" 전망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음식 배달 안 시키는 소비자들..."배달료 아까워"
- Cnet: LG, 연초 CES에서 신형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공개
- WSJ: 애플 아이폰 생산량, 중국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회복 중
- Bloomberg: 골드만삭스 CEO, "다음 달에 감원할 것"
- CNBC: '아바타: 물의 길', 중국 코로나 사태에도 14일만에 10억 달러 벌었다

[보고서]

- HBR 보고서: 고객을 꿰뚫어 보면 기업의 미래가 보인다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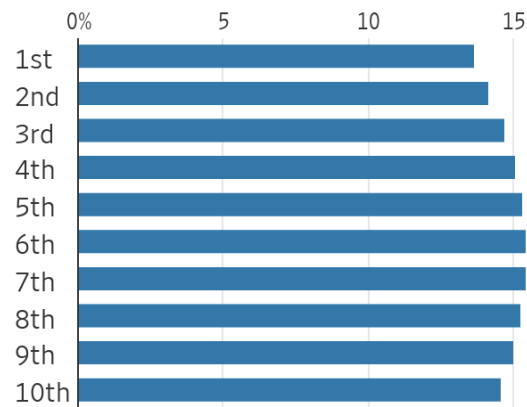
[미국 경제]

WSJ: Inflation Takes Biggest Bite From Middle-Income Households
미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 올해 중산층 가구의 구매력은 2.9% 떨어졌다. 하류층(전체 가구 중 하위쪽 5분의 1)은 오히려 1.5% 상승했고, 상류층도 1.1% 올랐다. 연방 예산실 발표다.
- 또 다른 조사인 센서스국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중산층이 살기 힘들다고 답했다.
- 논리적으로도 설명하면, 인플레이는 저소득층에 세금 부담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전례 없는 낮은 실업률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찾았고, 임금도 올라 생활비보다 더 많이 벌었다. 가뜰이나 팬데믹 때 연방 지원금도 받았다.
- 상류층도 주식과 채권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워낙 수입과 저축이 많아 계속 적극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었다.

Inflation Hits Middle-Income Households Hardest

Consumer Price Index by income decile, change from May 2020 to May 2022



Note: Based on prices for goods and services, weighted for consumption patterns of households at various income levels.

Source: Xavier Jaravel

WSJ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Rise Slightly But Remain Near Historic Lows

미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폭 상승...여전히 최저 수준

- 연방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9천 건 늘었다. 하지만 사상 최저치에 머무르고 있어 연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회복력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 이는 노동 공급의 지속적인 불균형 때문이다. 금융이나 테크와 같은 화이트칼라 직종이 해고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레저, 한대업종과 같은 산업들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주 1백70만 명으로 2월 초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이는 실직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US Jobless Claims Rise Slightly

Continuing claims increased to the highest since early February



Bloomberg 기사

WSJ: Housing Slump Set to Give Fed an Inflation-Fighting Assist

주택 시장 슬럼프가 연준의 인플레이 통제 노력 돕는다

- 고금리로 모기지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택 시장 슬럼프는 계속되고 있다.
- 주택 가격이 현재 떨어지고 렌트비 상승도 서서히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에 대한 주택 여파가 내년에 크게 줄어 들 수 있다.
- 이런 이유로 연준은 내년 말에 인플레이가 3.1%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인플레이가 6%.
- 그러나 연준의 걱정거리는 높은 인플레이 유지를 견인하고 있는 높은 임금이 다. 연준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소비 지출을 강하게 하고, 기업은 임금 상승 탓에 상품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미국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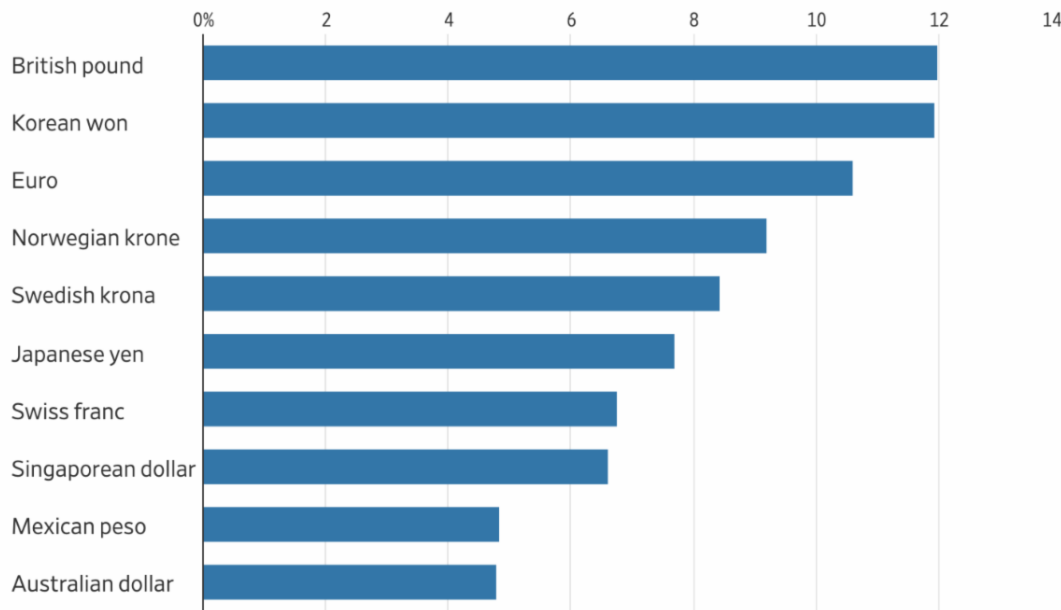
WSJ: An Epic Dollar Rally Goes Into Reverse—and Investors Expect Further Declines

투자자들, “달러 약세로 전환, 계속 된다”

- 올해 달러 강세는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만한 파워를 보였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런 위세가 끝나가고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 간단히 말해 달러 가치는 지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만도 WSJ Dollar Index에 따르면 8.9% 상승했다.
- 헤지펀드 Eurizon SLJ Capital의 CEO Stephen Jen는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와 비교해 10%에서 15%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는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높은 부채 등 미국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인 약점을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주목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경제 전망이 회복되면서 달러 약세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것.

Foreign Currencies Gain

Rise against U.S. dollar since its Sept. 27 peak



Note: Data as of Dec. 28.

Source: Tullett Prebon

- 그러나 투자자들이 미 인플레이 둔화에 베팅하면서 달러는 수익의 반을 반납하면 수세적인 입장에 놓인 것.

WSJ 기사

[뉴저지 소식]

Bloomberg: How Jersey City Got to Zero Traffic Deaths on Its Streets 저지시티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한명도 없었다. 왜?

- 뉴저지 전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 사망자는 20%나 올랐다. 하지만 저지 시티는 정반대.
- 저지시티는 2018년에 미국내 다른 일부 도시와 함께 교통사고 제로라는 가치를 걸고 국제 교통 안전 프레임워크인 Vision Zero를 채택했다.

- 예컨대 교차로에 '소형 원형 교차로'를 설치 운전자가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 교차할 때 속도 감속을 요구했다. 시청 근처 2019년 양방향 자전거 도로 설치 한 후 팬데믹 초기에 일방 통행 도로로 전환, 그리고 차량 제한 'Slow Streets' 등장, 차량 없는 Newark Avenue 만들기 등을 시도했다.

Bloomberg 기사

[중국]

Cnet: COVID-19 Test for Travelers From China to Be Required by US 중국발 여행자는 미 입국전에 코로나 음성 결과 제시해야

- 어제 수요일 연방질병통제방지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발표하기를, 중국, 홍콩, 마카오 출발 여행자는 미국행 비행기 탑승전에 코비드 음성 테스트 결과를 보여야 한다.
- 내년 1월 5일부터 실시되는 이같은 조치는 중국에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 새로운 변이의 미국행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

Cnet 기사

CNBC: Most Chinese shoppers are very cautious about going out, survey finds 많은 중국인들 외출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 관련 조사Oliver Wyman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외출하길 꺼려하고 있다. 코로나 관련 봉쇄 정책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꺼려하고 있다.
- 단지 응답자의 8%만이 외출해도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많은 중국인들은 외출에 신중한 상황이라는 것.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The Stephanomics Guide to the Global Economy in 2023 내년도 글로벌 경제전망은?

- 유명 팟캐스터 Stephanie Flanders는 블룸버그 전문 기자 등 전문가들과 내년도 세계 경제를 논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미국은 인플레이가 하락하고 있지만 연준이 내년에도 긴축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트럼프가 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은 전임자들 처럼, 의회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 많은 행정 명령을 사용할 것이다.

- 미국에 합류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가 평화 조약을 체결하도록 물러나기를 촉구할 것이면 일부 동구 국가들은 푸틴에 강경 입장을 보일 것이다. 바이든과 서구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푸틴과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중국이 감염 고비를 넘기게 되면 내년에 5.1% 성장할 것으로 보고 미국은 중국의 권력 강화와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에 우려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편들 들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Bloomberg 기사

[원자재]

Bloomberg: The Commodities Boom Will Continue in 2023 내년에도 원자재 붐 계속된다

- 한마디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구리에서 밀에 이르기 까지 각종 원자재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유가는 올해 연말까지 배럴당 약 80달러로 떨어졌지만, 2008년 12월에 보였던 배럴당 35달러를 조금 넘는 저점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구리에서 석탄, 밀에서 주식에 이르기까지 다른 원자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자재 붐은 끝나지 않고 잠시 멈추고 있을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Hot Commodities

The Bloomberg Commodity Spot Index has fallen about 20% from its June 2022 peak, but remains well above the 2008 and 2010 highs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CNBC: European natural gas prices return to pre-Ukraine war levels**유럽 천연가스 가격,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회복**

- 유럽의 벤치마크 계약인 Dutch Title Transfer Facility(TTF)의 천연가스 선물은 최근 몇 주 동안 급락하여 메가와트 시간당 77유로(\$81.91) 아래로 바닥을 쳤다.
- 당초 유럽 가스 가격은 8월 절정기에는 유럽연합의 제재 등으로 공급이 제한된 반면에 수요가 높아 345유로/MWh를 기록하기도 했다.

CNBC기사

CNN Business: Gas prices had a wild ride this year, making 2023 tough to predict**올해 급등 가솔린 가격, 내년에 예측 힘들다**

- 휘발유 가격은 올해 내내 변동성이 훨씬 커졌다. 팬데믹 때나 팬데믹 이전 수년간 보다도 변동성이 높았다.
- 디젤 가격도 설사 휘발유 가격이 1년여 이상 최저 수준을 보이지만 여전히 높다.
- 올해의 연료 가격은 특히 가솔린 가격이 낮은 주에서 변동성이 더 심했다. 특히 많은 서부주에서는 정제 용량이 제한되어 가격이 높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높았다. 왜냐하면 다수의 정유 고장 사고가 다발했다.

CNN Business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美 기업인 80%, 내년 침체 예상
- 연합: "미국 IRA 청정에너지 지원규정 아직 모호...구체적 기준 나와야"
- 한경: 소매업, 내년 먹구름 낀다더니..."코스트코·홈플러스는 번창" 전망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Consumers Change Food-Delivery Habits****음식 배달 안 시키는 소비자들..."배달료 아까워"**

- 경제적 우려가 소비자 지갑을 압박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음식 배달 서비스를 받는 행태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달을 시키지 않고 직접 픽업을 하거나, 더 싼 패스트푸드를 먹고, 주문 품목 수를 줄이고 있다.

- 이에 코로나 19 이후 급부상한 음식 배달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미국 배달음식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DoorDash와 Uber Eats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주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해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 이에 기업들은 배달료 할인, 연간 회원권 할인, 그룹 배달 등을 통해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프랜차이즈 자체 배달 주문도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WSJ 기사

Cnet: LG to Unveil New, Flat Smartphone Camera Module at CES LG, 연초 CES에서 신형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공개

- LG전자가 테크 업계의 최대 규모 행사인 연초 CES에서 스마트폰의 “bump”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공개할 예정이다.
- LG전자는 이번 모듈에 새로운 초소형 부품과 DSLR 카메라에서 볼 수 있는 광학 줌 기능, 더 얇은 디자인을 결합했다고 밝혔다. 여러 광학 줌 옵션을 하나의 모듈에 결합하여 스마트폰 내부 공간을 확보하고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LG는 퀄컴과 협력해 새 카메라 모듈용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 판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net 기사

WSJ: Apple Production in China Begins to Catch Up Despite Covid-19 Woes 애플 아이폰 생산량, 중국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회복 중

- 중국의 코로나 19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저우에서의 아이폰 프로 모델 생산이 설비 용량의 70% 정도로 복구되며 소비자 대기 시간이 1~2주 정도로 줄어들었다.
- 애플은 한때 “아이폰 시티”로 불리기도 하는 정저우에서 아이폰 프로 라인의 85%를 생산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아이폰 프로 최신 모델의 소비자 대기 시간이 40일까지 늦어진 바 있다.
- 한편 애플은 중장기적으로 인도와 베트남 등 중국 외의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에 너무 많은 생산을 집중하는 것이 정치적, 사업적 위험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WSJ 기사

Bloomberg: Goldman CEO Solomon Says Job Cuts Are Coming Next Month**골드만삭스 CEO, “다음 달에 감원할 것”**

- 골드만삭스의 CEO David Solomon가 직원들에게 보내는 연말 메시지를 통해 “1월 상반기에 인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둔화와 통화 긴축 등 사업 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선택이라는 것. 직원의 8%, 최대 4천명 규모의 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약 4백8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하지만 올해 통합 운영 등에 지출 비용이 많았고, 분석가들은 조정 연간 수익이 44%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Bloomberg 기사

CNBC: ‘Avatar: The Way of Water’ makes \$1 billion in 14 days, even with Covid weighing on China**‘아바타: 물의 길’, 중국 코로나 사태에도 14일만에 10억 달러 벌었다**

- 디즈니 신작 James Cameron 감독의 ‘아바타: 물의 길’이 극장 개봉 14일 만에 전 세계 매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아바타의 2009년 기록보다 5일 빠른 것으로, 역대 박스 오피스 매출 10억 달러에 가장 빨리 도달한 상위 5개 영화에 들었다.
- 하지만 업계는 당초 주요 수익원으로 예상했던 중국발 티켓 판매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저조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주 화요일까지 중국은 전체 매출의 1억 8백만 달러를 차지하는 데에 그쳤다.
- 한편 Cameron 감독은 ‘아바타: 물의 길’이 수익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20억 달러의 흥행 수입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석가들은 2월 중순까지 극장가에 경쟁작이 없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CNBC 기사

[보고서]**HBR 보고서: Do You Really Understand Your Best (and Worst) Customers?****고객을 꿰뚫어 보면 기업의 미래가 보인다**

- 대부분의 기업은 지리적 관점, 특정 브랜드나 제품, 판매 채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재무 성과를 분석한다.
- 이러한 관점 때문에 기업의 총매출이 고객 한 명 한 명에 좌우된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고객 데이터를 “원자 단위(atomic unit)”로 접근해 분석하면 새로운 관점에서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 “고객 기반 감사(customer-base audit)”란, 거래 시스템에 의해 포착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의 구매 행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별 구매 행동의 차이점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고객 기반 감사에는 아래 5가지 렌즈가 있다. (five lenses of a customer-base audit)

Lens 1: 최고의 고객과 최악의 고객은 누구인가?

- 각각의 고객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하면 모든 고객이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결론을 찾을 수 있다.
- Ex) 작년에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몇 명인가? 이 고객들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 가치를 가지는가? 수익성이 가장 높은 10%의 고객과 가장 낮은 10%의 고객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Lens 2: 고객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가?

- 이런 분석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른 구매자 행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기간에 따른 고객 행동의 변화는 즉 개별 고객의 평균 주문 빈도와 가치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Ex) 지난 2년간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모두 몇 명인가? 1년 전의 구매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최상위 고객 중 몇 %가 다음 해에도 최상위를 유지했는가? 각 고객의 평균 주문 빈도, 구매 당 수익, 마진의 변화는 어땠는가?

Lens 3: 고객 집단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 이 관점의 분석으로 기업은 수익 및 수익 역학을 이해하고자 할 때 고객 집단을 분석의 핵심 단위로 보게 된다.
- Ex) 올해 2분기에 처음 구매한 고객은 두 번째 구매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시간이 지나도 활동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의 구매 빈도, 구매 당 평균 지출 및 마진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Lens 4: 다른 집단과의 비교

- 전체 수익 또는 마진 측면에서의 피상적인 비교를 넘어 집단 크기, 활동적 구성원 유지 비율, 지출 성장의 측면에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Lens 5: 통합 분석

- Lens 1-4의 결론을 통합하여 전체 고객 중심의 기업 성과를 파악한다.

- Ex) 당사의 고객 기반은 얼마나 “튼튼(healthy)” 한가? 소규모 고객 집단에 대한 의존도는 어느 정도인가? 시간에 따라 고객의 “특질(quality)”은 어떻게 변했는가? 신규 고객은 이전 고객과 비교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향후 1~2년간 현재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고객 확보/유지 측면에서 당사의 향후 성장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결론

- 고객을 분석 단위로 할 경우에 회사의 성과를 보는 것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에서 “누가 돈을 벌게 해주는지” (“what makes us money” to “who makes us money.”)로의 사고방식 전환을 일으킨다.
- 고객 기반 감사는 경영진이 기업의 수익, 수익의 흐름, 향후 성장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이해할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번역: 백승아)

HBR 보고서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2022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5가지 트렌드... '초저금리의 종말'이 가져온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후 3년간 지속됐던 강세장은 끝났다. ‘장밋빛 꿈’으로 증시를 이끌던 성장주가 고꾸라지자 투자자들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받쳐주는 가치주로 피신했다. 미 중앙은행(Fed)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통화 정책을 펼치며 초저금리가 깨졌고, 시중 유동성은 확 줄었다. 암호화폐 시장은 생존의 기로에 섰다.

28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금융시장의 특징을 이같이 총 5가지로 정리했다.

발단은 ‘저금리의 종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 십수년 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는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끝났다. Fed는 올 초 0~0.25%였던 기준금리를 4.25~4.5%까지 끌어올렸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뒤따랐다.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겠지만 초저금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는 내년 5%를 웃돌다 장기적으로 2.5%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